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통계자료 중심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통계분석

여성의 건강 행태

전기택 | 본원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

2006년 여성고용동향

주재선 | 본원 동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여풍? 아직은 불균형!

전기택 | 본원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

여성의 건강 행태*

전 기 택 본원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

여성의 건강 평가와 건강관리 방법

2006년, 16세 이상 여성 가운데 자신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 거나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여성은 약 4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16세 이상 여성 가운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6세 이상 남성 가운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가장 높다. 그리고 16세 이상 여성 가운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좋다' 거나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4%와 32.6%이지만, 남성은 이보다 높은 10.8%와 39.7%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쁜 편이다' 라거나 '매우 나쁘다' 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각각 16.2%와 2.9%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쁜 편이다' 라거나 '매우 나쁘다' 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7%와 1.9%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그리고 2006년, 16세 이상 여성 가운데 '규칙적인 운동' 을 하거나 '정기 건강 검진' 을 받은 여성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강관리 방법 가운데 하나인 '아침식사하기' 를 실천한 16세 이상 남녀의 비율은 각각 72.0%와 7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수면(6~8시간) 취하기' 를 실천한 16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78.3%, 남성은 이보다 3.2%p 적은 75.1%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을 실천한 16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25.6%이고, 남성은 이보다는 많은 31.1%이다. 또한 '정기 건강 검진' 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27.5%이고, 남성은 32.6%가 '정기 건강 검진'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여성 흡연 인구

2006년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흡연 인구 비율은 3.9%로, 남성에 비해 48.3%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문의 '1. 여성의 건강 평가와 건강관리 방법', '2. 여성 흡연 인구', '3. 여성 음주 인구' 는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4. 여성 비만 인구' 는 '200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에 수록된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15세 이상 남녀의 건강평가: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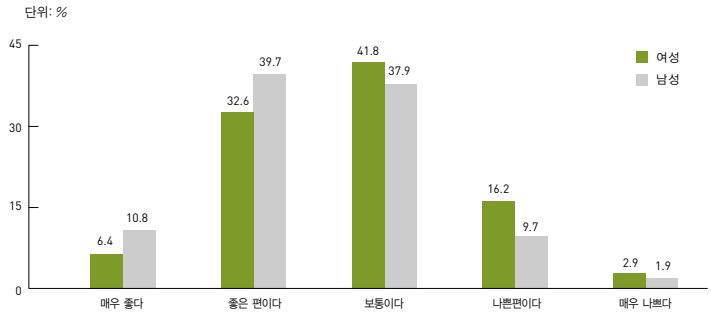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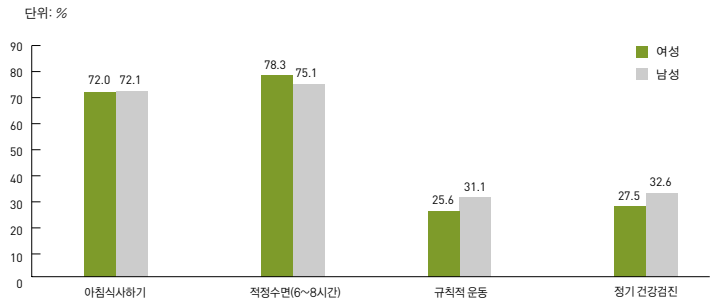


그림 2 15세 이상 남녀의 건강관리 방법: 2006년



남성의 경우, 2003년에 비해 흡연 인구 비율이 4.1%p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0.1%p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비흡연 인구 가운데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3.7%로 2003년에 비해 0.2%p 증가하였지만, 같은 시기 남성 비흡연자 가운데 금연 인구의 비율은 60.9%에서 62.7%로 1.8%p 증가하였다(〈표 1〉 참고).

표 1 20세 이상 남녀 흡연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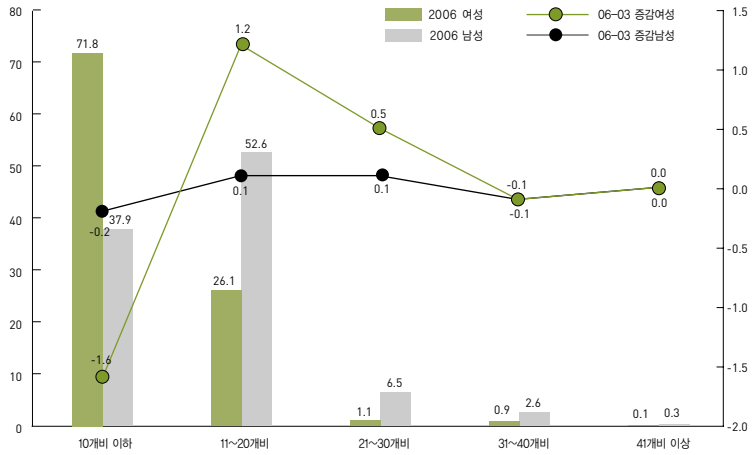
단위: %, %p

		20세 이상 인구	흡연	비흡연	비흡연 전체	
					끊었음	피워본적 없음
2003	여성	100.0	3.8	96.2	3.5	96.5
	남성	100.0	56.3	43.7	60.9	39.1
2006	여성	100.0	3.9	96.1	3.7	96.3
	남성	100.0	52.2	47.8	62.7	37.3
증감 (2006-2003)	여성	-	0.1	-0.1	0.2	-0.2
	남성	-	-4.1	4.1	1.8	-1.8

한편 여성 흡연자의 흡연량을 살펴보면, 2006년 하루 평균 흡연량이 반 갑 이하인 여성 흡연자의 비율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하루 평균 흡연량이 11~20개비인 흡연자의 비율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 평균 흡연량이 21개비 이상인 여성 흡연자의 비율은 2.1%, 남성 흡연자의 비율은 9.4%이다. 또한 여성 흡연자 가운데 하루 평균 11~20개비, 21~30개비 흡연자의 비율은 2003년에 비해 각각 1.2%p와 0.5%p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1~20개비, 21~30개비 흡연자 비율이 각각 0.1%p씩 증가하였지만, 여성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다(〈그림 3〉 참고).

그림 3 20세 이상 남녀 흡연 인구의 흡연량: 2006년

단위: %, %p



여성 음주 인구

2006년,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음주 인구는 2006년에 비해 12.2%p 증가한 61.2%로 나타났다. 그리고 20세 이상 남성 가운데 음주 인구의 비율은 85.9%로, 2003년에 비해 5.2%p 증가하여, 여성 음주 인구의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 비음주 인구 가운데 음주 경험자의 비율은 2003년 28.8%에서 2006년 30.4%로 1.6%p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남성 비음주 인구 가운데 음

표 2 20세 이상 남녀 음주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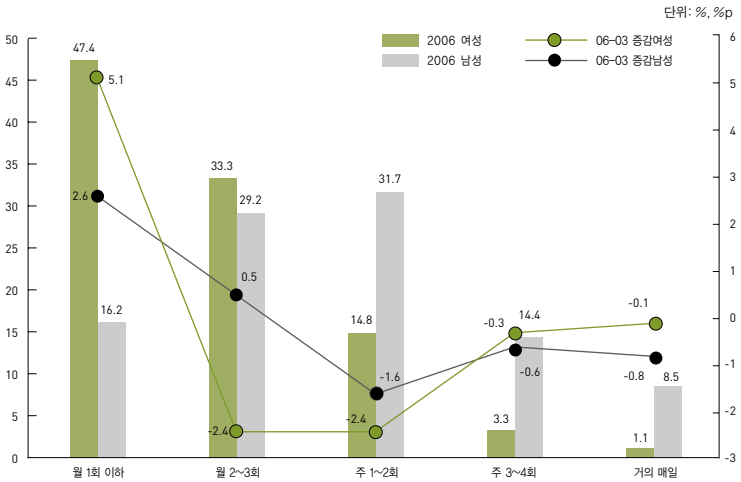
단위: %, %p

		20세 이상 인구	음주	비음주	비음주 전체	
					마셨으나 끊음	마셔본 적 없음
2003	여성	100.0	49.0	51.0	28.8	71.2
	남성	100.0	80.7	19.3	64.5	35.5
2006	여성	100.0	61.2	38.8	30.4	69.6
	남성	100.0	85.9	14.1	61.0	39.0
증감 (2006-2003)	여성	-	12.2	-12.2	1.6	-1.6
	남성	-	5.2	-5.2	-3.5	-3.5

주 경험자의 비율은 64.5%에서 61.0%로 3.5%p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 비음주 인구 가운데 음주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의 비율이 2003년 71.2%에서 2006년 69.6%로 1.6%p 감소하여, 여성 음주 인구의 전반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표 2〉 참고).

다음으로 음주량을 살펴보면, 여성 음주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47.4%가 월 1회 이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3년에 비해 5.1%p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음주 인구 가운데 33.3%가 월 2~3회 정도 음주를 하며, 주 1~2회 정도 음주를 하는 여성 음주자의 비율은 14.8%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음주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31.7%가 주 1~2회 정도 음주를 하며, 다음으로 월 2~3회 정도 음주를 하는 남성의 비율은 29.2%이다. 한편 거의 매일 음주를 한다는 여성 음주자의 비율은 1.1%인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약 8배 많은 8.5%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 참고).

그림 4 20세 이상 남녀 음주 인구의 음주 횟수: 2006년



여성 비만 인구[1)]

2005년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20대 여성의 비만 인구 비율이 14.3%로 가장 낮고, 60대 여성의 비만 인구 비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8년, 2001년, 2005년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은 각각 26.5%, 29.4%, 28.3%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기간 20세 이상 남성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은 26.0%, 32.4%, 35.2%로 점차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은 13.1%, 12.2%, 14.3%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1998년과 2001년에

1) 이 글에서 비만과 저체중은 체질량지수(BMI,kg/㎡)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저체중은 체질량지수 18.5 미만, 정상은 체질량지수가 18.5~24.9, 비만은 체질량지수가 2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는 70세 이상(8%와 23.0%), 2005년 20대 가운데 비만 인구 비율이 25.5%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20대 남성의 비만 인구 비율은 같은 연령대 여성의 비만 인구 비율보다 11.2%p 높은 것이다. 이 외에 1998년 21.0%였던 30대 여성 중 비만 인구 비율이 2001년과 2005년 각각 19.3%와 19.4%로 나타났으며, 1998년 30.0%였던 40대 여성 중 비만 인구 비율 역시 2001년 33.5%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29.5%로 감소하였다. 한편 60대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층 여성 가운데 비만 인구의 비율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1998년 39.0%, 2001년 46.6%, 2001년 46.7%로 비만 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70세 이상 여성 중 비만 인구의 비율은 29.2%, 33.4%, 33.5%로 증가하였다(〈그림 5〉, 〈표 2〉 참고).

그림 5 20세 이상 여성의 연령별 비만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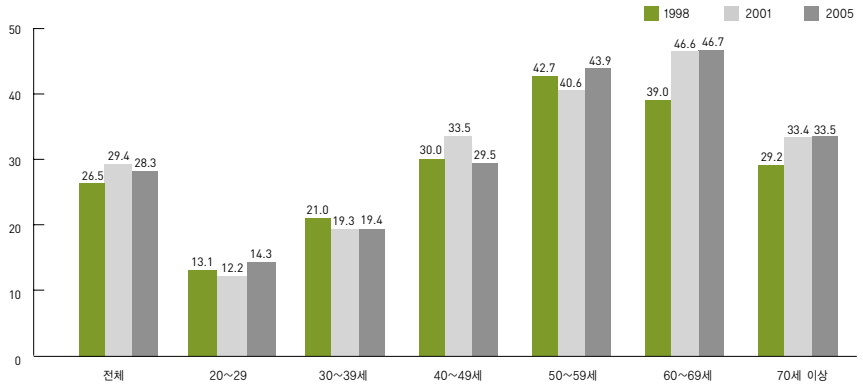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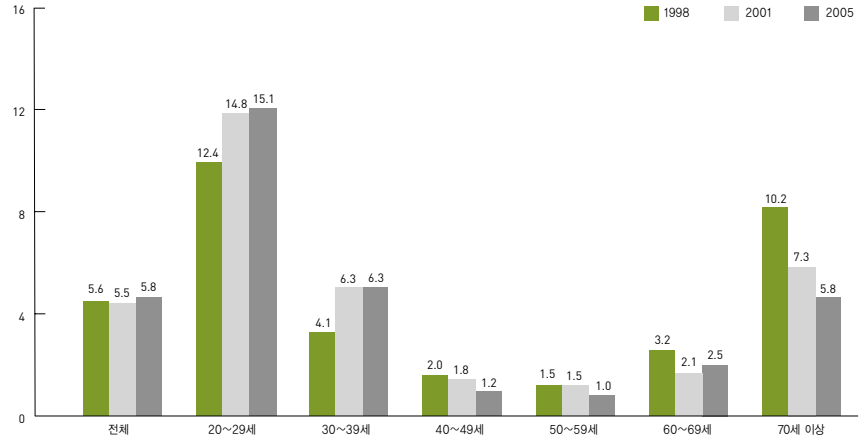


그림 6 20세 이상 여성의 연령별 저체중 인구 비율

단위: %



그리고 1998년, 2001년, 2005년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저체중 인구의 비율은 각각 5.6%, 5.5%, 5.8%로 5%대에서 소폭의 증감이 나타났지만, 20대와 30대 여성 가운데 저체중 인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우선 20대 여성의 경우, 1998년 12.4%였던 저체중 인구 비율은 2001년과 2005년 14.8%와 15.1%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 4.1%였던 30대 여성 가운데 저체중 인구의 비율은 2001년과 2005년 6.3%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 2.0%였던 40대 여성 중 저체중 인구 비율은 2005년 1.2%로, 같은 기간 50대 여성 중 저체중 인구 비율은 1.5%에서 1.0%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1998년 10.2%였던 저체중 인구 비율이 2005년 5.8%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그림 6〉 참고).

표 2 20세 이상 남녀 인구의 연령별 비만도 분포

단위: %

		여성			남성		
		저체중	정상	비만	저체중	정상	비만
1998	전체	5.6	67.9	26.5	4.5	69.6	26.0
	20~29세	12.4	74.4	13.1	6.4	73.6	20.0
	30~39세	4.1	74.9	21.0	2.6	69.0	28.4
	40~49세	2.0	67.9	30.0	2.2	64.6	33.3
	50~59세	1.5	55.9	42.7	2.5	69.2	28.3
	60~69세	3.2	57.8	39.0	6.9	73.1	20.0
	70세 이상	10.2	60.6	29.2	19.8	72.2	8.0
2001	전체	5.5	65.2	29.4	3.5	64.1	32.4
	20~29세	14.8	73.0	12.2	5.0	67.4	27.6
	30~39세	6.3	74.3	19.3	1.7	63.3	35.0
	40~49세	1.8	64.7	33.5	1.6	59.4	39.0
	50~59세	1.5	57.9	40.6	1.7	65.9	32.4
	60~69세	2.1	51.3	46.6	6.9	65.2	28.0
	70세 이상	7.3	59.3	33.4	9.4	67.6	23.0
2005	전체	5.8	65.9	28.3	3.6	61.1	35.2
	20~29세	15.1	70.6	14.3	4.6	69.9	25.5
	30~39세	6.3	74.2	19.4	3.4	58.8	37.8
	40~49세	1.2	69.3	29.5	2.2	56.6	41.2
	50~59세	1.0	55.1	43.9	1.9	57.0	41.1
	60~69세	2.5	50.8	46.7	4.5	64.0	31.5
	70세 이상	5.8	60.7	33.5	10.2	61.6	28.2

2006년 여성고용동향

주 재 선 본원 동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여성 경제활동인구[1)]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천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1천명(1.4%) 증가

2006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천397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23만5천명(1.0%)이 증가했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14만1천명(1.4%)이 증가하여 여성경제활동인구 천만명 시대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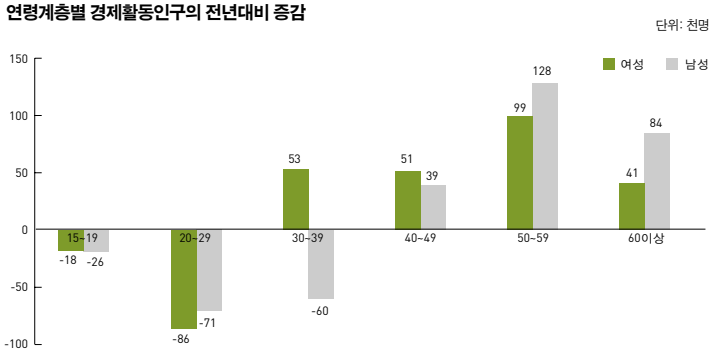
표 1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6-2005	
						증감	증감율
전 체	22,134	22,921	23,417	23,743	23,978	235	1.0
여 성	9,101	9,4869,6	90	9,860	10,001	141	1.4
남 성	13,034	13,435	13,727	13,883	13,978	95	0.7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에서는 10만4천명 감소했고, 30세 이상은 24만5천명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50대 여성이 가장 큰 9만9천명 증가를 보였고 20대가 8만6천명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그림 1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의 전년대비 증감



1) 본 통계분석은 통계청의 2005년과 2006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성별로 재분석한 것으로,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이며, 실업자 판별기준은 구직기간 4주임.

교육정도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은 전문대졸에서 4만7천명, 대졸이상에서 18만6천명 증가했고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하에서는 각각 3만5천명, 2만8천명, 2천명 감소했다.[2)]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대부분 기혼여성에서 나타났다. 즉 2006년 기혼 여성은 745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15만명 증가한 반면, 미혼여성은 전년대비 오히려 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보다 전체적 규모는 작지만 기혼과 미혼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2005	2006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여성	미혼	2,554	2,544	-10	-0.4
	기혼	7,306	7,456	150	2.1
남성	미혼	3,061	3,100	39	1.3
	기혼	10,822	10,878	56	0.5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전년대비 0.2%p 증가

2006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2005년 이후 연속 50%대를 기록하였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6년 50.3%로 15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을 약간 넘는 비율이 경제활동을 하였다. 반면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74.1%로 전년대비 -0.5%p 하락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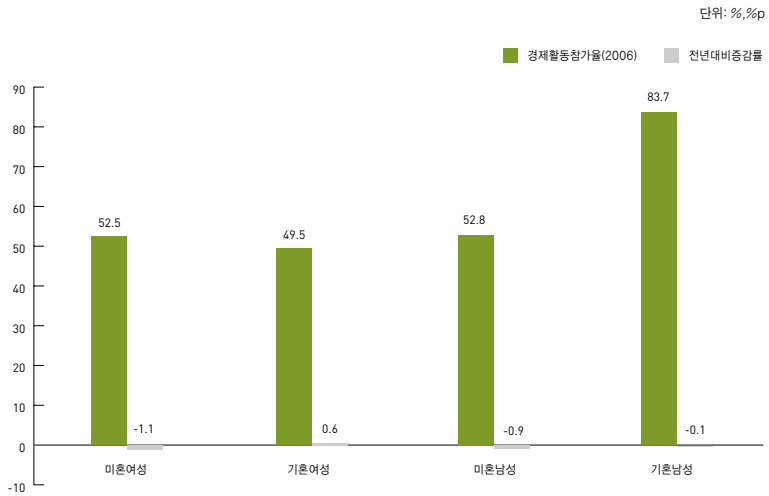
	2000	2002	2004	2005	2006	2006-2005
전체	61.2	62.0	62.1	62.0	61.9	-0.1
여성	48.8	49.8	49.9	50.1	50.3	0.2
남성	74.4	75.0	75.0	74.6	74.1	-0.5

연령계층별로 전년대비 증감 정도를 보면 24세 이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 반면 25세 이상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정도별로 대졸(4년제 이상) 이상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5~55세와 60세 이상 연령계층과 전문대졸에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이외 집단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여성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반면, 이외 집단 즉 미혼여성(1.1%p), 기혼남성(0.1%p), 미혼남성(0.9%p) 집단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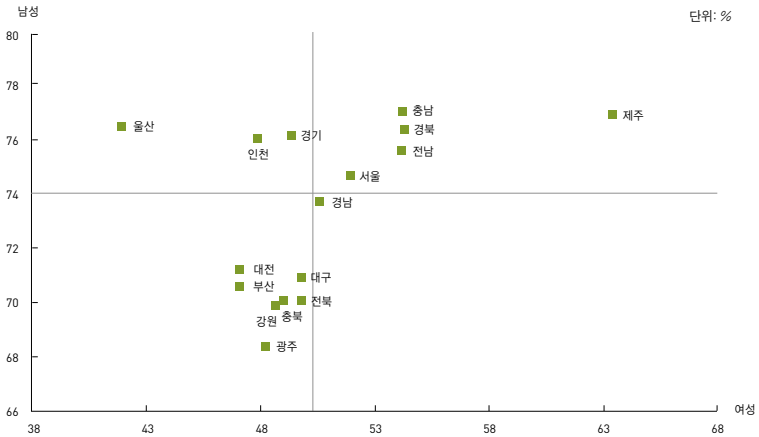
2) 본 분석에서 제시하지 않은 통계는 주요통계를 참조할 것.

그림 2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전년대비 증감



시도별로 보면 제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울산여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41.9%로 나타났다.

그림 3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 2006년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평균(남 74.1%, 여 50.3%)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으로 나타났고, 역으로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고 남성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지역이었고 울산, 인천, 경기 지역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고 남성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

여성 취업자는 970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18만명(1.9%)증가

여성 취업자는 2000년 876만9천명, 2002년 922만5천명, 2004년 936만4천명에서 2006년 970만6천명으로 지난 6년 간 93만7천명의 증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비농가 여성 취업자는 전년대비 20만2천명 증가했고, 농가 여성 취업자는 2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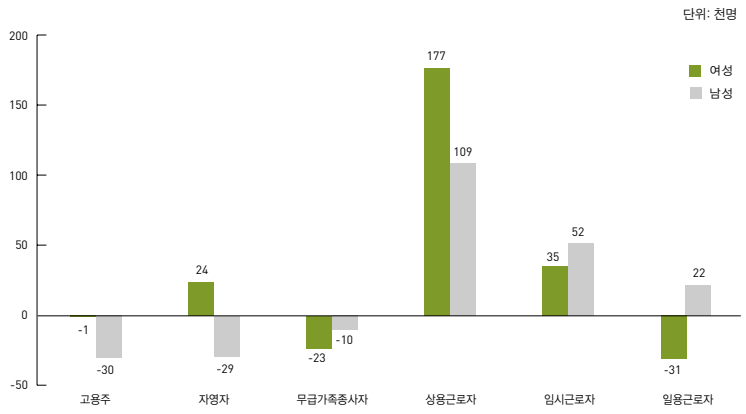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6-2005	
						증감	증감율
여성	8,769	9,225	9,364	9,526	9,706	180	1.9
농가 여성	1,195	1,146	1,010	988	966	-22	-2.2
비농가 여성	7,574	8,079	8,354	8,538	8,740	202	2.4

여성 상용근로자 전년대비 17만7천명 증가

여성 취업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용근로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전년대비 상용근로자가 17만7천명, 임시근로자가 3만5천명, 자영자가 2만4천명 증가하였고,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각각 1천명, 2만3천명, 3만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취업자의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했고 더 좁혀 보면 상용근로자의 높은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전년대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증감정도



산업별로 여성취업자 증감을 보면 전년대비 농림어업(1만2천명), 제조업(4만1천명), 도소매 및 소매업(3만4천명), 통신업(8천명), 숙박 및 음식업(4천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9천명), 국제 및 외국기관(1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감소했고 이외 산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 증가가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와 사업서비스업으로 각각 7만9천명과 6만1천명의 증가를 보였고,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만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3만명), 금융 및 보험업(2만8천명) 등의 산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여성취업자 규모는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 분야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전년대비 여성 취업자가 증가된 직종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2천명), 전문가(6만명), 기술공 및 준전문가(9만3천명), 사무종사자(3만1천명), 단순노무종사자(5만8천명) 등이었고, 서비스종사자(1만4천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기능자(1만4천명),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만3천명), 농림어업숙련자(1만1천명), 판매종사자(9천명) 등의 직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실업자

전년대비 여성 실업자 수 4만명 감소

2006년 여성 실업자는 29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명(12.0%) 감소하였고 남성 실업자는 53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3.6%)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 실업률은 2.9%로 전년대비 0.5% 감소했고, 남성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p)

	2005	2006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실업자	887	827	-60	-6.8
여성	334	294	-40	-12.0
남성	553	533	-20	-3.6
실업률	3.7	3.5	(-0.2)	-
여성	3.4	2.9	(-0.5)	-
남성	4.0	3.8	(-0.2)	-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 여성 실업자가 1천명 증가했고 이외 모든 연령층에서는 여성실업자가 감소하였다. 30대 여성 실업자가 전년대비 1만6천명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비율을 보였고, 40대(1만2천명), 20대(6천명), 10대(4천명), 50대(4천명) 순으로 큰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여성 실업자 규모는 여전히 20대가 14만8천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5만4천명, 40대가 4만9천명, 50대가 2만1천명, 10대가 1만 4천명, 그리고 60세 이상이 8천명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대졸여성 실업자는 증가하고 이외 교육정도에서는 감소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학력 소유자의 남녀 실업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여성고졸 실업자는 13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9천명 감소했고, 남성고졸 실업자는 28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4천명 감소하였다. 이외 초졸이하, 중졸, 전문대졸 실업자는 남녀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졸이상 실업자는 약간 증가하여 여성 1만1천, 남성 8천명의 증가를 보였다.

표 6 교육정도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2005	2006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초졸이하	여성	26	20	-6	-23.1
	남성	38	34	-4	-10.5
중졸	여성	27	26	-1	-3.7
	남성	62	56	-6	-9.7
고졸	여성	177	138	-39	-22.0
	남성	295	281	-14	-4.7
전문대졸	여성	54	49	-5	-9.3
	남성	63	59	-4	-6.3
대졸이상	여성	50	61	11	22.0
	남성	95	103	8	8.4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989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5천명(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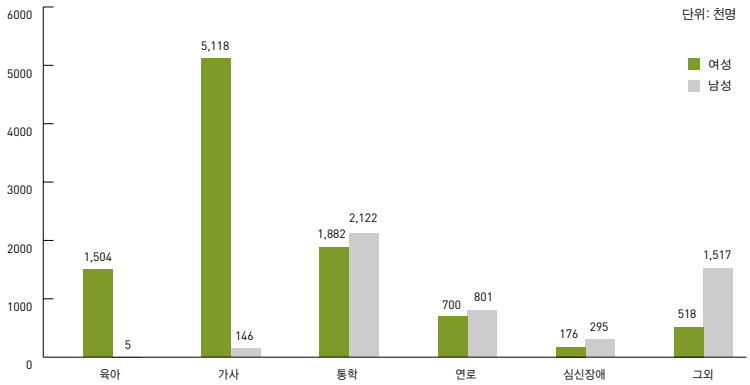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7만5천명,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명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가 여성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989만8천명으로 남성 비경제활동인구(488만5천명)에 비해 여전히 매우 큰 규모로 나타났고, 활동상태의 경우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활동인구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통학인구가 4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6-2005	
						증감	증감률
계14,052	14,042	14,383	14,557	14,784	227	1.6	
여성	9,564	9,556	9,803	9,823	9,898	75	0.8
남성	4,488	4,486	4,580	4,734	4,885	151	3.2

그림 5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2006년



여성 구직 단념자는 4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여성은 총 4만6천명이고 전년대비 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구직 단념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여 7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8 구직 단념자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2	2004	2005	2006	2006-2005	
						증감	증감률
계	165	69	100	125	122	-3	-2.4
여성	75	27	47	54	46	-8	-14.8
남성	90	43	54	71	75	4	5.6

여풍? 아직은 불균형!*

여성의 국가고시 합격 추이와 여성 공무원 직급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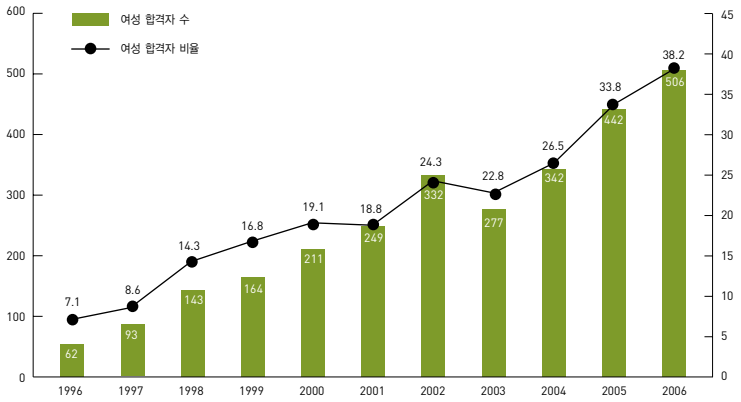
전 기 택 본원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

여성의 3대 국가고시 합격 추이: 1996~2006년

1997년까지 10% 미만이었던 3대 국가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5년부터 30%대에 진입하였다. 즉, 1996년과 1997년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사법고시 등 3대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자는 각각 62명과 93명으로 100명 미만이었고,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도 각각 7.1%와 8.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998년 3대 국가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여 14.3%로 나타났고, 2001년(18.8%)까지 10%대를 유지하였다. 또한 2002년 전체 합격자의 24.3%에 해당하는 332명의 여성이 3대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여성 비율이 20%대에 진입하고, 2003년 여성 비율이 22.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4년 26.5%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5년 전체 합격자의 33.8%에 해당하는 442명의 여성이 3대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여, 여성 합격자 비율이 본격적으로 처음 30%대에 진입하였다. 2006년 여성 비율은 38.2%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6년 3대 국가고시 여성 합격자 506명은 1996년(62명)과 비교하여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여성 비율 역시 1996년 대비 31.1%p 증가한 것이다(〈그림 1〉 참고).

그림 1 **여성의 3대 국가고시 합격 추이: 1996~200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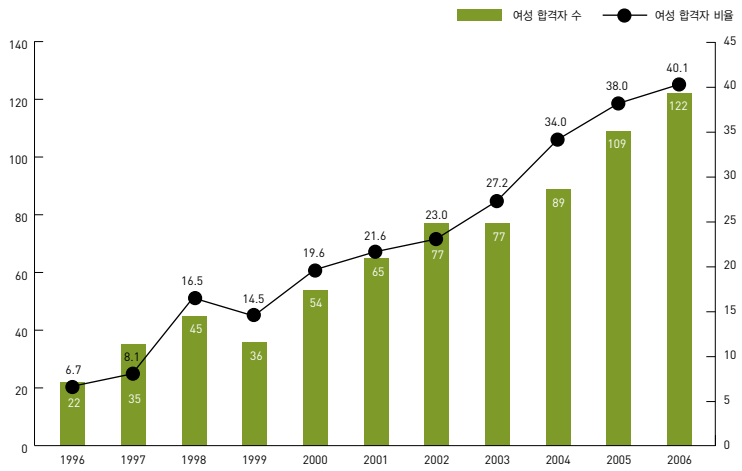
* 이 글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법무부 등의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 통계와 이용가능한 최신 여성 공무원 현원 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본문의 행정고시합격자 통계에는 기술고시와 지방고시 합격자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행정고시 합격 추이와 여성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

1996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대 국가고시 가운데 가장 낮았던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이 2006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1996년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6.7%로 3대 국가고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1997년에는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과 동일하게 8.1%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16.5%로 10%대에 진입하였으며, 1999년 14.5%로 일시적 감소한 이후에 2000년 19.6%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대를 유지하였다. 즉,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1년 21.6%, 2002년 23.0%, 2003년 27.2%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4.0%로 30%대에 진입한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이 2006년 40.1%를 기록함으로써, 2년 만에 40%대에 진입하였다. 2006년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수(122명)와 여성 합격자 비율(40.1%)은 1996년과 비교하여 각각 454.5%, 33.4%p 증가한 것이다(〈그림 2〉 참고).

그림 2 여성의 행정고시 합격 추이: 1996~2006

단위:명, %



행정고시 여성합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는 주로 남성이 분포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9월 현재 국가 일반직(고위공무원~9급)의 21.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9월 현재 국가 일반직 1급과 2급은 전원 남성, 고위공무원의 99.0%도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3급, 4급, 5급 국가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0% 미만이다.[1] 반면 국가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9%, 24.3%, 32.9%, 39.7%로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고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고). 그리고 국가 일반직 5급 이상

1) 고위공무원은 2005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 실 · 국장급 공무원 대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의미함(「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2006. 6. 12 제정) 참고).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3%이고, 6급 이하 국가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5.0%이다. 한편, 국가 일반직 여성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의 비율은 6.5%, 남성 가운데 5급 이상의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2006년 9월 현재 국가 일반직(고위공무원~9급) 여성 공무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직급은 7급(32.4%), 다음으로 8급(26.3%)이다. 남성도 7급(27.8%)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집단은 6급(26.7%)이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19.2%가 9급인 반면 전체 남성 가운데 9급의 비율은 8.0%이다. 국가 일반직 여성 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의 비율은 93.5%인 반면, 남성은 이 보다 26.3%p 적은 77.2%가 6급 이하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그림 3 국가 일반직(고위공무원~9급) 공무원의 직급별 남녀 구성 비율 : 2006. 9. 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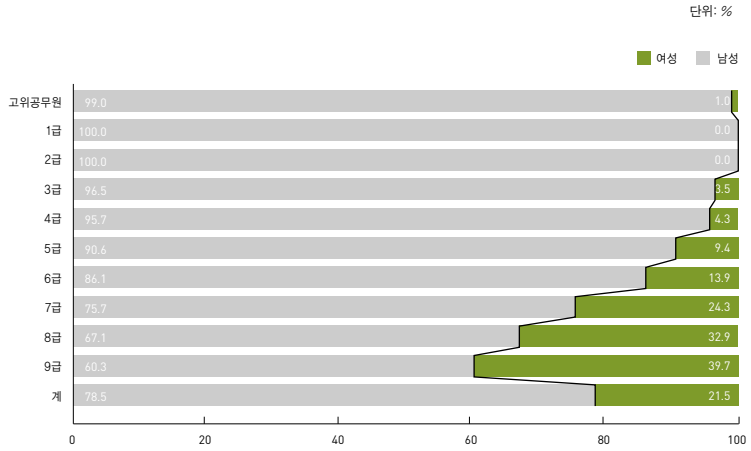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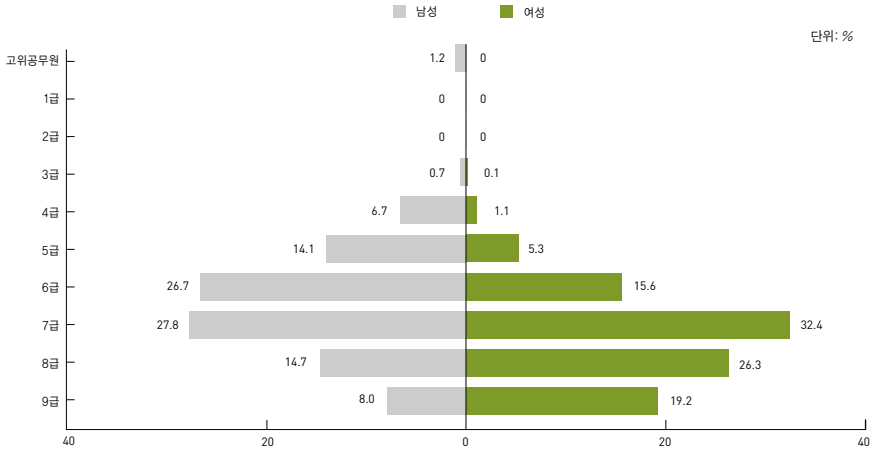


그림 4 국가 일반직(고위공무원~9급) 남녀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 : 2006. 9. 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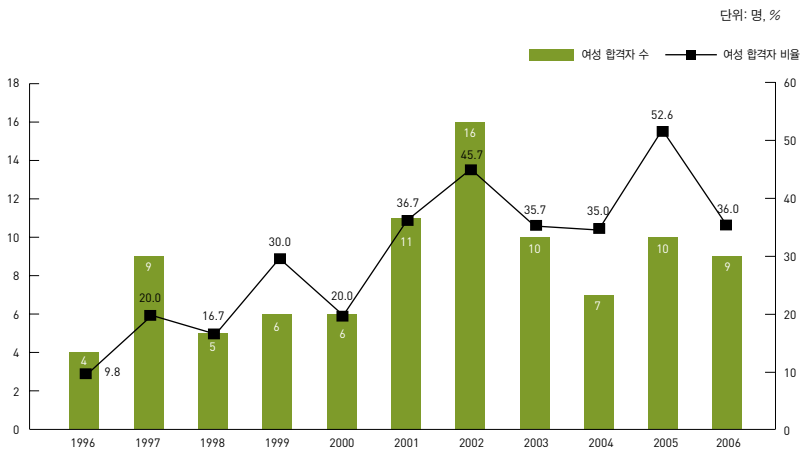


여성의 외무고시 합격 추이와 여성 외무직 공무원의 등급별 분포

1996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9.8%로 3대 국가고시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1997년에 이미 20.0%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1998년 16.7%로 감소하였던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1999년 30.0%로 증가한 후에 2000년 다시 20.0%로 감소하였다. 2001년 36.7%로 다시 증가한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2년 45.7%로 일시적으로 40%대에 진입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 다시 35.7%와 35.0%로 감소한다. 2005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52.6%로, 1996년 이후 3대 국가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6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36.0%로 다시 하락한다. 전체적으로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1999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2000년을 제외하고, 매년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수와 여성 합격자 비율은 1996년과 비교하여 각각 125.0%와 26.2%p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의 여성 합격자 증가율과 여성 합격자 비율 증가에 비해 작은 수치이다(〈그림 5〉 참고).

외무고시 여성합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즉, 2005년 12월 31일 현재 외무직 3~14등급 가운데 14등급, 13등급, 11등급, 10등급, 9등급, 7등급 등 6개 등급에서 여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 3)] 또한 남녀가 동시에 재직하고 있는 등급 가운데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등급은 3등급(23.7%), 5등급(21.0%)이고, 여성 비율이 10% 미만인 등급은 12등급(1.7%), 8등급(2.4%), 6등급(7.4%) 등이다(〈그림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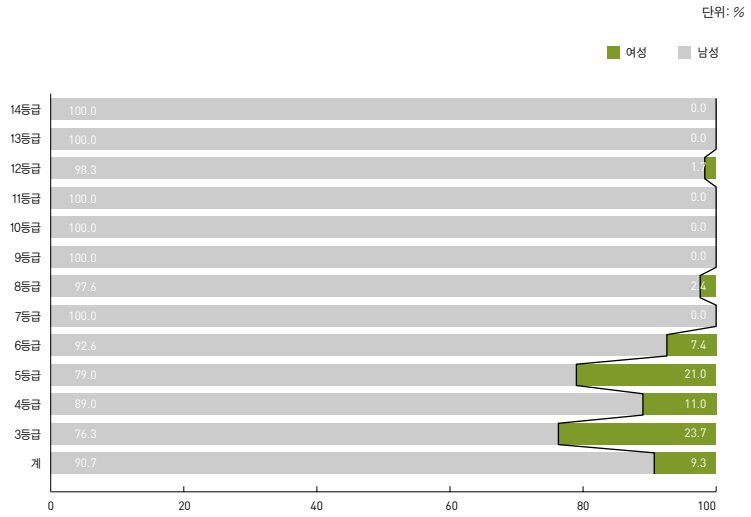
그림 5 여성의 외무고시 합격 추이: 1996~2006



2) 2005년 12월 31일 외무직 현원 통계에서 1등급과 2등급에 재직 중인 외무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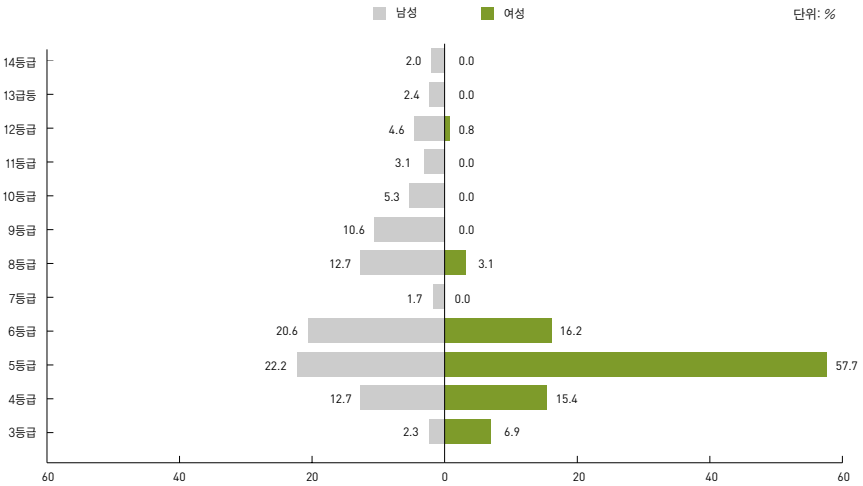
3) 외교직 14등급에는 외교안보연구원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3등급에는 차관보, 의전장, 기획관리실장, 외교정책실장, 통상교섭조정관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 12등급에는 대변인, 재외동포영사대사, 대테러국제협력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경력교수, 11등급에는 외보교안보원의 연구부장 및 아시아태평양국장, 북미국장 등 외교통상부의 각 국장이 포함된다(「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 1) 직위별 직무등급표(2006. 10. 12 일부개정) 참고). 그리고 외무직 6등급은 일반직 4급, 외무직 5등급은 일반직 5급, 외무직 4등급은 일반직 6급, 외무직 3등급은 일반직 7급, 외무직 2등급은 일반직 8급, 외무직 1등급은 일반직 9급에 해당한다(「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2006. 1. 12 개정) 참고).

그림 6 외무직 공무원의 등급별 남녀 구성 비율 : 2005. 12. 31 현재



한편 2005년 12월 31일 현재, 여성 외무직의 절반 이상이 5등급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외무직 중 비중이 큰 집단은 5등급(57.7%)과 6등급(16.2%)이며, 두 등급 간의 차이는 41.5%p이다. 반면 남성도 5등급(22.2%)과 6등급(20.6%)의 비중이 크지만 두 등급 간의 차이는 1.6%p에 불과하며, 외무직 5등급 이하 재직자의 비중이 여성의 경우 80.0%인 반면, 남성은 37.2%에 불과하다(〈그림 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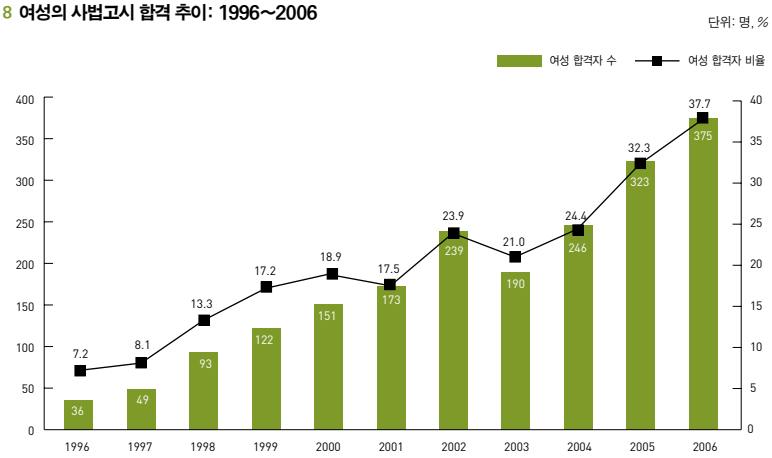
그림 7 남녀 외무직 공무원의 등급별 분포 : 2005. 12. 31 현재



여성의 사법고시 합격 추이와 여성 검사의 직위별 분포

외무고시는 1999년, 행정고시는 2004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대에 진입한 반면, 사법고시는 이보다 늦은 2005년에 여성 합격자 비율이 32.3%를 기록하였다. 예컨대 1996년과 1997년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각각 7.2%와 8.1%로 10% 미만이었다. 그리고 1998년 여성 합격자 93명(13.3%)을 배출하여 여성 합격자 비율 10%대에 진입하고, 1999년 17.2%, 2000년 18.9%, 2001년 17.5%로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10%대를 유지하였다. 또한 2002년 사법고시 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3.9%로 나타났고, 2003년 21.0%로 감소하였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4년 24.4%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5년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년대비 7.9%p 증가한 32.3%를 기록하여 30%대로 진입하였다. 2006년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375명은 1996년 대비 941.7% 증가한 것으로 3대 국가고시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여성 합격자 비율은 1996년과 비교하여 30.6%p 증가한 것이다(〈그림 8〉 참고).

그림 8 여성의 사법고시 합격 추이: 1996~2006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여성 검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예컨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은 전원 남성이고, 일반 검사의 0.1%만이 여성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고). 또한 2005년 12월 31일 현재, 남성 검사 가운데 0.1%가 검찰총장, 0.4%가 고등검사장, 2.6%가 검사장, 97.%가 일반 검사로 재임하고 있는 반면, 여성 검사 138명은 전원 일반 검사로 재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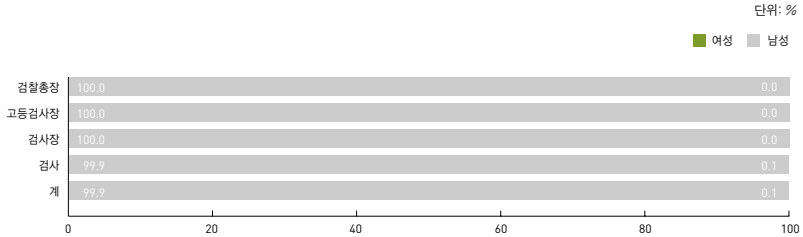



그림 9 검사 직위별 남녀 구성 비율: 2005. 12. 31 현재